

“국내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美 빅스텝, 제동걸릴 수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못버터
파산한 은행 중 역대 두번째 규모
IT·바이오스타트업, 주거래 고객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가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는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SVB 붕괴사태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한번 더 동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내 16번째 규모 은행인 SVB는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버티지 못해 파산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SVB의 총자산은 2090억 달러, 총예금은 1754억 달러다.

◆“금융위기로 확산되기 어렵지만…시장 변동성 키울 수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SVB 붕괴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낙관적 시각은 실리콘밸리은행이 일반은행들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큰 타격을 받은 IT와 바이오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들이 주거래 고객이다 보니, 그 충격이 훨씬 컸다는 해석이다.

12일 모건스탠리는 SVB의 총자산은 JPMorgan의 10%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은행위기를 촉발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고객 노트에서 “SVB가 맞닥뜨린 현재의 압력은 매우 특이한



(왼쪽)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F4회의에 ‘SVB 파산’ 안건 올라
“실물경제 등 영향 배제할 수 없어
관계기관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

美 연준, ‘빅스텝’ 시사 했지만
“SVB파산, 급격한 금리인상 탓”
일부 지적에 0.25% 인상 가능성도

경우로 다른 은행들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파산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다면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이 매주 일요일 참석하는 일명 ‘F4 회의’에 SVB 파산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들은 간담회 후 “이번 미국 SVB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폐쇄로 확산되면서 금융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실리콘 밸리 은행 간판 모습. /뉴시스

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아직은 이번 사태가 미국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의 금융 시장, 실물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관련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 통화긴축 유지 지배적

특히 이번 SVB 붕괴사태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한번 더 동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현재 SVB 보다 규모가 큰 은행들로 문제가 번지지 않는 한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날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7일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강도 긴축은 단행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VB파산도 연준이 지난 1년간 미국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린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연준이 이달에도 빅스텝을 밟을 경우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형 은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연준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연준이 0.25%p만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짙어진 불확실성에 지난달 금리 동결을 단행한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

국내의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진 데 이어 경상수지가 1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한미금리차가 사상 최대로 커질수도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병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외국인 자금이탈 가속화 되나… “증시 변동성에 대비를”

한국거래소, 지난주 코스피 1.54% ↓
외국인·기관 순매도에 지수 끌어내려

다음주 美 주요 경제지표 발표 예정에
경계심으로 인한 변동성 가능성 주목

주식시장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여파가 들이닥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달 하순부터 순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자금의 국내시장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2432.07) 대비 37.48포인트(1.54%) 내린 2394.59에 마감했다. 특히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42억원, 2849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개인투자자만이 홀로 8123억원치를 순매수했다.

미국 SVB 파산등의 이슈가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이번주에도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는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의 핵심자금원인 SVB가 파산을 선언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예금을 일시에 인출하면서 SVB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에 미국 은행주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KBW 나스닥 뱅크 인덱스’는 일주일간 15% 넘게 하락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번 SVB 사태가 개별기업의 이슈일뿐 금융업종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VB 파산사태가 여타 대형 금융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해 중소형 은행들 중 일부는 부담이나 영향이 확산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음주 중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면서 전문가들은 경계심으로 인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오는 14일 미국 2월 소비자물가

지수(CPI), 15일 2월 생산자물가(PPI)·소매판매, 17일 2월 산업생산 등이 연이어 발표된다.

또 이번 SVB 사태가 미국의 과잉긴축 여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시장의 긴장도는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으로, 그 수치에 따라 금리인상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식시장은 좋은 지표는 나쁘게(Good is Bad), 나쁜 지표는 좋게(Bad is Good) 해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준 정책과 미국 경기사이를 전망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2월 고용 지표 발표 후 물가 지표가 대기하고 있어 현재는 하방재료의 영향력이 큰 구간으로 판단한다”라며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기술적 부담도 높은 상황으로 높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석 기자 ysl@